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

• 작성자 : 정 성규 목사

• 일 시 : 2006.11. 2.

1. 목적 - 교회 제도에 실망한 '익명의 그리스도인' 과 '익명화 중인 그리스도인' 을 초청하여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직시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므로 그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소속교회의 갱신(개혁)을 위해 일하도록 권면한다.

2. 목표 - ① 교회갱신(개혁)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린다.
②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전문가를 통해 확인한다.
③ 만인제사장에 입각한 갱신(개혁) 운동에 참여한 교회, 목사, 성도들이 이룩한 성과를 보여준다.
④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다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⑤ 개 교회에서 교회갱신(개혁)을 끊임없이 외쳐야 하는 이유를 알린다.
⑥ 교회갱신(개혁)을 위한 준비과정을 개설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논의 한다.
⑦ 예인가족으로 하여금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캠페인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참여 시킨다.

3. 사전 준비 :

① 캠페인

• 교회 내부 : 예인가족들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사역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발적으로 섬기도록 독려한다.

- 설교와 전단을 통해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 성도 자신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출하게 한다.(대상자 카드)
-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직접 초청하게 한다.(초청방법 제시, 초청장)
- 세미나 당일 초청자를 섬긴다.
- 준비팀을 중심으로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 틀을 세우고, 이후 매년 실행도록 한다.

• 교회 외부 :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를 홍보하므로 부천과 인천지역에 교회갱신(개혁)을 위해 준비된 성도를 모으고, 갱신(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의 참여를 권한다.

- 전단지배포 : 각 셀을 통해 지역 배포(담당지역 정하여 고지).(담당 : 정 성규 목사)
- 현수막 : 제시 가능한 곳에 현수막 설치 가두 홍보.(담당 : 준비팀 전원)
- 기관 : [뉴스앤조이], [복음과 상황], [교회개혁연대], [개혁교회네트워크] 회원 교회를 통한 홍보(담당: 황영수 집사)
- 신학교 : 인근 신학교에 홍보지 및 현수막 설치.(담당: 이 하용, 안 태훈 전도사)
- 기독교서점 : 부천 내 기독교서점에 홍보물 게시, 전단지 비치.(담당: 이 하용, 안 태훈 전도사)
- 초청 : 개혁성향의 목회자 장로를 초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한다.

② 초청자 파악

• 대상자 :

-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를 성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게 한다.
- 인적사항을 자세히 파악한다.(대상자 카드)

• 초청자 :

-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한다.(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도록 간절한 기도)
- 대상자를 초청하기 위해 관계를 형성한다.
-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최대한 자세히 파악한다.(대상자 카드)

장애물을 무너뜨려라!

- 영적 장애물 무너뜨리기 : 대상자의 참석을 위해 하나님께 맡기고 전심으로 기도하자!
- 정서적 장애물 무너뜨리기 : 대상자를 만나 교화에 대한 실망·비방을 들어주자! 공감하자!
- 시간적 장애물 무너뜨리기 : 모두 바쁘다. 그렇지만 중요한 일은 반드시 해야 함을 잊지 말자!
- 두려움의 장애물을 무너뜨리기 : 먼저 나 자신부터 두려움을 극복하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만나 대화하다보면 초청할 수 있는 길이 보임을 잊지 말자!

③ 준비 일정

• 11월 5일 :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캠페인 시작

- 목표, 일정소개, 홍보전단지[무엇이 대안입니까?] 배포
- 대상자 카드 배포, 현수막 주말 게시(담당자, 지역 위치 관리), 기관 및 신학교 홈페이지에 홍보, 내부회 원에게 전단지 배포.
- 서점에 전단지 배포.(전단 부착 및 비치)
- 각 예배, 각 셀 모임, 금요기도회를 통해 집중 기도를 시작.
- 영상 작업을 시작(담당: 안 태훈 전도사 / 교회 문제를 사건 중심으로 다룬다.)
- 인터넷 카페를 개설.(담당 : 아직 미확정)
- 금요기도회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를 위한 특별 기도회 안내.

• 11월12일 : 대상자 카드 작성 권유

- 대상자 카드 제출자 : 전화로 보다 구체적인 인적사항 작성을 돕는다.(담당: 이 은선)
- 셀 리더를 통해 대상자 카드 작성을 격려한다.(담당: 준비팀장과 총무)
- 세미나 당일 진행순서 확정, 담당자 선정 및 통보(준비팀장), 순서지와 초청장을 완성.
- 홍보 전단 2안을 확정하고 인쇄한다.(담당: 김 용주 집사)
- 셀별 기도 체인을 만들어 릴레이 기도를 한다.(담당: 정 성규 목사)
- 현수막 주말 게시(담당자, 지역 위치 관리)
- 금요기도회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를 위한 특별 기도회 참석권유.

• 11월19일 : 대상자 카드 작성 권유, 초청을 위한 전화, 차, 식사를 하도록 권유한다.

- 홍보 전단지 2안을 인쇄하여 1안 때와 동일하게 홍보한다.
- 세미나 당일 순서, cue-sheet완성, 테이블 배치, 지역모임 담당자 및 대화진행방법 제시.
- 셀별 기도 체인을 만들어 릴레이 기도를 한다.
- 현수막 주말 게시.(담당자, 지역 위치 관리)
- 초청자를 확정하고 초청장을 발송한다.(담당 : 준비팀 여성도들)
- 금요기도회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를 위한 특별 기도회.

• 11월26일 : 참석자 명단을 만든다. 강사에게 당일 cue-sheet를 보내고, 강의 내용을 확인한다.

- 영상 시연, 수정, 확정한다.
- 참석자 명단, 테이블 명단 확정한다.(테이블 명단은 대화 가능한 세대, 성별, 직분을 고려해서 만든다.)
- 지역별 모임 리더 교육을 한다.
- 행사 당일 봉사, 설치, 안내, 간식, 진행 등 담당자를 세워 할일을 고지한다.
- 금요기도회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를 위한 특별 기도회.

④ 세미나 당일 순서(12월 3일 / 오후 3시-)

- 진행 : 준비팀장
- 테이블별 대화의 시간 : 테이블 리더(20분) 테이블별 자기소개 및 공감대 형성.
- 찬양 : 안 태훈 전도사(10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 인사 : 정 성규 목사(3분)
- 한국교회의 7가지 문제점 : 교회와 목사, 성도의 문제는 100%로 보여준다.(김 중희 기자(ppt))(30분)
- 영상안 태훈 전도사(7분) 앞에서 제시된 문제를 영상으로 확인.
- 교회다운 교회를 위한 노력 : 예인교회가 지난 4년 동안 해온 노력을 알린다.[홍 순호 권사(ppt))(30분)
- 지역모임을 통해 참석자와 예인교우(사전교육이 된)와 허심탄화한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50분)
- 후속모임 소개 : 정 성규 목사(5분), 안내지 필요.
- 찬양과 기도 : 안 태훈 전도사, 진행자.(10분)
- 대화(자유롭게)

⑤ 후속 프로그램

- 12월 10일부터 후속 모임을 개설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공동과정 시간에 교회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병행 강의 한다.[공동과정-13주+교회갱신(개혁)의 필요성]
- 소속 교회에서 교회개혁을 위한 노력을 하게 한다.[대외 협력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돕는다]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준비팀

준비팀장 : 김 태용 권사

총 무 : 하 애용, 추 배식 집사

팀 원 : 조 병학 김 정애 박 영춘 한 경순 윤 희숙 황 영수 김 용주

배 경호 조 미현

• **비전의 말씀**

· 다니엘 12:1-3 “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2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3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 **핵심가치 : 한 영혼**

· 누가복음 15장 - 가치의 중요성

- 잃어버린 양의 비유 : 100마리의 양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나서는 목자.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은 후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하는 목자 // 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 사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 열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후 이웃을 불러 잔치하는 여자 // 1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때물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나머지 아홉 드라크마의 의미가 없어진다.]

-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 일부를 챙겨 떠났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항상 기다렸다. 아들은 방탕하게 살았고,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 아버지가 그리워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이 돌아오자 잔치하는 아버지 /// 22-24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 15장의 핵심 / ① 모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잃어**)버렸다.

② 모두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③ 모두 찾았고, 이웃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④ 그런데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비난하는 자가 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큰 아들**)이다.

예) 놀이동산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날이 어두워지자 그만 찾고 다음날 찾기로 하는 부모가 있을까?

택시에서 내리다가 동전 100원을 떨어뜨린 사람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 1시간을 사용할까?

• **우리의 현실**

· 침체된 교회 -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할 말이 없는 교회[전도하지 못하는 (성도)교회]

- 교회(성도)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

- 전도에 대한 (**두려움**) 느끼기 때문

- 전도에 대한 (**지혜**)가 없기 때문

• 전략 찾기

• 예수님의 전도 방법

-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다른 메시지를 사용하셨다. 대상에 맞춤 전도(customized evangelism)

니고데모 -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물가의 여인 - 물을 달라 -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부자청년 -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

삭개오 - 내려와라! 네 집에 유하리라. 내가 네 친구가 되리라! [눅19]

	예수님	세례요한
대화	생활 속에서-만나는 대상자	선포
	귀납적	연역적
대상	개인적	대중적
문화	문화에 참여	문화로부터 이탈
관계	관계의 유지	관계의 단절
유형	뚝단배	기차길

• 사도바울의 전도 방법

고린도전서 9:19-23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23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 마태의 파티전도

누가복음 5:27-32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좇으라 하시니 28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좇으니라 29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30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31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32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 대상자 중심의 전도를 하는 이유

창세기의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셨다.

출애굽기의 하나님은 (**산**)에서 말씀하셨다.

레위기의 하나님은 (**성막**)에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직접**) 말씀하셨다.

• 전략

- 대상자 중심(Target-oriented) :
 - 복음 선포자 중심이 아니라 (**대상자 중심**)이어야 한다.
 - 대상자의 삶과 (**밀접**)해야 한다.
 - 대상자의 마음이 (**열려야**) 복음을 듣는다.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찾아야 한다)
 - 모든 프로그램, 메시지는 (**대상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
- 문화적 접근(Cultural approach)
 - 교회 전문용어 보다 대상자의 (**익숙한 문화**)(언어)를 사용한다.
 - 익숙한(추억) 문화 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대상자와 (**공감대**)를 형성한다.
 - 고급문화를 접목시켜 대상자를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팀 사역(Team-work)
 -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다.
 - 사람은 (**은사**)에 따라 일해야 한다.
 -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생길 때 팀 사역이 이루어진다.

•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 관계의 형성, 유지 및 확대를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

- 정의 : 전도대상자를 동질 그룹별로 세분화 하고 복음과 전도 대상자의 접촉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복음을 시대적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

• workshop

- 우리가 초청할 대상은 누구인가?
- 그들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말은 무엇인가?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팀 - 김태용, 조병학, 하애용, 추배식, 모화순, 김정애, 한경순, 조미현, 황영수, 박영춘, 윤희숙, 배경호 • 운영위원 - 홍순호, 안홍휘, 하상교, 임순희, 윤용은 • 초청 - 김용현, 김용주, 김광수, 안귀현, 하경석 • 교역자 : 이하용, 안태훈
다음주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I(Relevance Originality Impact) 전략 • 강사 : ???

목적지향적인 캠페인(행사)을 위한 전략적 접근(홍순호 권사/운영위원장)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좋은 것, 편한 것,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

2006년 현 시대의 특징

불확실성 시대 IMF, 911 이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 종교의 필요성

다양성-다변화 시대 삶의 기준의 붕괴, 다양한 삶의 등장, 세대간의 단절 - 다양한 종교 등장

인류는 소리없는 전쟁 중 기업은 상품을 팔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 전략의 필요성

하나님의 구원 전략 성경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서. 성도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전략**)에 동참해야 한다.

교회의 전도 전략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18-20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의 전도 전략 특징

공격적 성향 → (**거부감**)

폭발적 성장 → (**진실성 상실**)

상하 복종적 구조 → (**복음과 교회에 대한 오해**)

예수님의 전도관 대상자의 필요에 따른 맞춤전도(customized evangelism)

전략 :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바울의 전도관

고전 8:1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전 10:23-24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24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전 9:22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Planning for ROI 적합성(Relevance), 독창성(Originality), 임팩트(Impact)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창조
ROI 목적을 이루는 캠페인 세우기(광고주에게 투자 보상/Return On Investment)

ROI는 전략기획 과정이다 캠페인의 성패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하나의 창의성(creativity)이고, 다른 하나는 크리에이티브 과정(creative process)에 앞서서 진행되는 전략
기획이다.

전략기획 과정이란? 선택의 연속이다.

즉 캠페인이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

누구에게 전달되어야 하는가?

그 사람이 특정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여 주고 말해 주어야 하는가?

언제 어디서 그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내고 선택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ROI가 왜 중요한가? 목적지향적인 캠페인 달성을 위한 초석이 ROI이다.

왜냐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장소, 시점, 요인 등을 확실히 하지 않고 출발하면 크리
에이티브가 아무리 탁월해도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좋은 전략의 출발점은 커뮤니케이션
이 수행될 실제 세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 도움을 주는 간단한 과정을 기술한 것이 바로

Planning for ROI

즉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과 신념과 편견, 경쟁자, 사람들이 선택하게 될 상황,

그들을 둘러싼 다른 커뮤니케이션 등을 이해하는 것이 ROI이며 좋은 전략의 출발점이다.

ROI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1. 캠페인으로 무엇을 달성하려 하는가?
2.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3. 그들에게 전달한 결과로 어떤 행동을 얻어 내려 하는가?
4. 언제, 그리고 어디서 그들에게 말해야 하는가?
5. 무엇을 말하며, 그대로 행하면 어떤 대안이 있다고 제안할 것인가?
6. 집회를 위해 어떤 개성을 형성해야 하는가?
7. 캠페인이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핵심 통찰(Key Insight)은 무엇인가?

캠페인으로 무엇을 달성하려 하는가?

“캠페인을 활용하여 얻어 내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에 대한 사전 확정이 없으면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에 대해서 나중에 끝없는 논쟁에 휘말린다.

누구에게 전달하려 하는가

“표적 청중(목표집단)” 을 의미
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집단
그들은 누구이며,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들에게 전달한 결과로 어떤 행동을 얻어내길 원하는가?

“기대 행동” 을 의미(-대신에)
그들이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에 노출된 후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인가를 명확히 묘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은 자극이고 행동은 반응이기 때문이다.
즉, 자극의 결과로 나타난 행동 반응이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이며
따라서 어떤 반응을 얻으려 하는지를 먼저 결정하여야
어떤 자극을 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 그들에게 말해야 하는가?

“메시지 수용의 열린 틀” 을 의미
우리의 제안에 대해 우리의 목표 집단이
문을 최대한 활짝 열어 두고 있는 시간, 장소, 환경은 언제, 어디서인가?

어떤 보상이 있다고 무엇이라 말할 것인가?

“보상과 뒷받침” 을 의미
우리 목표 집단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우리는 보상과 뒷받침을 제안해야 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보상은 행사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 청중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주관적인 경험이다.
기대반응을 잘 일으킬 수 있는 보상을 한 가지 제안한다.
내가 (기대행동)을 하면, 나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뒷받침)이 있으니까.

집회를 위해 어떤 개성을 형성해야 하는가?

“Tone and Style”
우리가 옳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캠페인이 초점 맞추어야 할 핵심통찰은

“Key Insight”
통찰은 전략의 전개 과정 중 모든 부분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단 하나의 결정적인 통찰에 강조 표시를 하여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도록 하는 것이다.

ROI를 통해서 얻어야 할 것은

모든 행사의 목표를 명확히 할 것.

타깃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할 것.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는지 명확히 할 것.

무엇을 이야기 할 것인지, 또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줄 것.

언제 어디서 이야기 할 것인지 정할 것.

어떤 톤과 분위기로 말할지를 정할 것.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할 것.

The end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제도적인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성도간의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예인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가칭-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일시 : 2006. 10. 15(주일까지)
좋은 이름을 지어주신 분께는 상품을 드립니다.
• [익명-집회] 준비팀 •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제도적인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성도간의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예인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가칭-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일시 : 2006. 10. 15(주일까지)
좋은 이름을 지어주신 분께는 상품을 드립니다.
• [익명-집회] 준비팀 •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제도적인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성도간의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예인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가칭-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일시 : 2006. 10. 15(주일까지)
좋은 이름을 지어주신 분께는 상품을 드립니다.
• [익명-집회] 준비팀 •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제도적인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성도간의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예인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가칭-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일시 : 2006. 10. 15(주일까지)
좋은 이름을 지어주신 분께는 상품을 드립니다.
• [익명-집회] 준비팀 •

무엇이 대안입니까?

마음의 자유
마음의 자유
마음의 자유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

- 진행 : 김 태용 권사(준비팀장)
- 자기소개 : 테이블별 자기소개 및 인사(테이블 리더)
- 찬양 : 안 태훈 전도사
- 세미나 1 : [한국교회의 7가지 문제점] 김 종희 기자(뉴스앤조이)
- 영상 :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 세미나 2 : [교회다운 교회를 위한 노력] 홍 순호 권사(예인교회 운영위원장)
- 지역모임 : 허심탄회한 시간
- 후속모임 소개 : 정 성규 목사
- 찬양과 기도 : 안 태훈 전도사
- 대화 : 자유롭게

후속 프로그램

월 / 일	강의 1 (90분)	강의 2 (30분)
12/10	오리엔테이션	파플퍼즐
12/17	복과 축복	개혁자의 영성과 자질
12/24	믿음	비판과 대안
12/30	교회	건강한 교회란?
2007.1/7	예배	기복신앙의 극복
1/14	성경과 경청의 방	전통실천과 사회참여
1/21	헌신	개교회주의 극복
1/28	서바이벌 : 연필, 종이, 그리고 연필 깎기	
2/ 4	성경적 세계관-창조	민주적 운영
2/11	타락과 구속	투명한 재정
2/18	권리포기 -1	교회개혁 현안-1
2/25	권리포기 -2	교회개혁 현안-2
3/ 4	권리포기 -3	교회개혁 운동
3/11	파송식	

- 본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교재는 실비로 구입해야 합니다.
- 본 과정의 수료는 12회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예인교회**

무엇이 대안입니까?

교회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기보다 노력합니다.
이제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관심이 필요한 세미나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2006년 12월 3일 (주일) 오후 3시
복사골문화센터 5층

주최: **에인교회** www.yein.org T. 032)328-0692

후원: 교회개혁실천연대 www.protest2002.org
뉴스엔조이 www.newsjoy.co.kr



익명의 그리스도인, 당신을 초대합니다.

예수님과 첫 사랑에 빠져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동안 세상을 의지하며 살던 모습이 부끄러워

교회 마루바닥을 뒹굴며 회개했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어려운 시절,

예배당을 짓기 위해 과분한 희생을 하면서도

벽돌 한 장 한 장 올라가는 것만으로 감사했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예배당을 완공하는 날,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린 것 같아서 감동, 감사하여

새 예배당 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행복했던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횡, 무리한 건축, 세습, 기복주의,

현금강요, 불투명한 재정운영, 이웃사랑 외면, 부도덕성 등...

얼룩진 상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교회로부터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다 상처 입고 교회를 등진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을 예인가족의 관심으로 초대합니다.

예인교회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

2006.12.3(주) 오후 3시, 복사골문화센터 5층

세미나

- 진행 : 준비팀장 김 태용 권사
- 테이블별 리더와 함께 : 테이블별 자기소개 및 공감대 형성
- 찬양 :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높이며
- 인사 : 정 성규 목사
- 한국교회의 7가지 문제점 : 김 중희 기자의 현장 보도
- 흔들리는 한국교회 : 그 동안의 사건과 사고 - 영상
- 교회다운 교회를 위한 노력 : 운영위원장 홍 순호 권사의
예인의 [교회다운 교회 세우기] 소개
- 지역모임 : 예인교우와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
- 후속모임 소개 : [교회다운 교회] 어떻게 세울 것인가
- 찬양과 기도 : 진행자
- 대화 : 자유롭게

후속모임

- 일시 : 2006년 12월 10일부터 매주일 오후 3시
- 장소 : 복사골 문화센터 512호
- 내용 : 공동과정과 교회갱신(개혁)의 필요성
- 목적 : 개 교회에서 갱신(개혁)을 위한 수고를 지속하게 한다.
- 대외협력 : 지속적으로 모임을 진행하고,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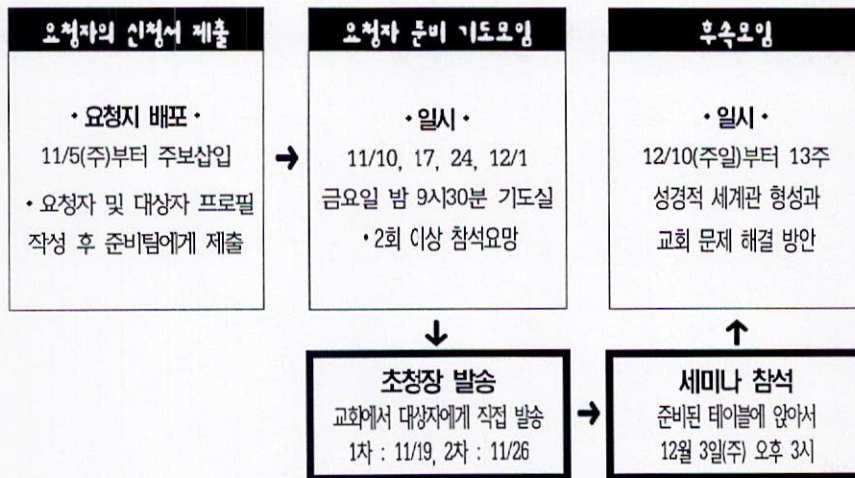
장애를 뛰어넘어 함께 전

- 영적 장애를 무너뜨리기 : 대상자의 참석을 위해 하나님께 말하고 전심으로 기도하자!
- 정서적 장애를 무너뜨리기 : 대상자를 만나 교회에 대한 실망과 비방을 들어주자! 공감하자!
- 시간적 장애를 무너뜨리기 : 모두 바쁘다. 그렇지만 중요한 일은 반드시 해야 함을 잊지 말자!
- 두려움의 장애물을 무너뜨리기 : 먼저 나 자신부터 두려움을 극복하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만나 대화하다보면 초청할 수 있는 길이 보임을 잊지 말자!

이런 분이 초청 대상입니다

- 부모나 형제 대부분이 교회의 종직자인데 ⇨ 홀로 믿지 않는 사람
-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가 중단하고 ⇨ 예배만 출석하거나,
다른 교회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 목사와 성도의 전횡으로 상처받고 ⇨ 교회를 떠난 사람
-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 방황하는 사람
- 교회다운 교회에 대해 ⇨ 공부하고 싶은 사람

대상자를 세미나로 인도하기까지 요청자가 해야 할 일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대상자 프로필

- 성명 / _____ • 성별 / 남 여
- 생년월일 / _____ (나이 _____ 세)
- 전화번호 / _____ • 핸드폰 : _____
- 주소 : _____
- 이메일 : _____
- 결혼유무 : 기혼 미혼
- 직분 :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교사, 성도, 청년, 기타
- 요청자와의 관계 : 가족, 직장동료, 친구, 선배, 이웃, 기타
- 전화통화가능여부 : 가능 불가능
- 서신발송가능여부 : 가능 불가능
- 교회에 대한 태도 : 긍정적 부정적 불분명 기타
- 목사에 대한 태도 : 긍정적 부정적 불분명 기타
- 특별참고사항(준비팀이 알아야 할 대상자의 개인적 사항)

요청자 카드

- 요청자 성명 :
- 요청자 금요 중보기도모임 참석 여부(2회 이상 참석하셔야 합니다)
 - 1차 : 11/10 ▫ 2차 : 11/17 ▫ 3차 : 11/24 ▫ 4차 : 12/1

본인은 _____ 씨의 회복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세미나를 돕겠습니다.

_____ 서명

• 기도제목 •

- ①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를 통해 “익명의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돕는 교회 되게 하소서.
- ② 나의 주변에 있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확인하고 그들을 초대하게 하소서.
- ③ 이번 세미나를 통해 주변 목회자와 성도를 섬기고, 주변 교회들에게는 제도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교회갱신(개혁)을 일궈가게 하소서.
- ④ 준비팀[김태용(팀장), 하애용, 주배식(총무), 김용주, 조병학, 김정애, 윤희숙, 조미현, 황영수, 박영춘, 배경호, 한경순(팀원)]에게 함께 하시고, 캠페인 기간 동안 그들의 가정, 직장, 하는 일 위에 함께 하셔서 선한 열매 맺게 하소서.
- ⑤ 강사(김 중희 기자, 홍 순호 권사)에게 함께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소서.
- ⑥ 후속모임을 통해 교회갱신의 방향을 소개하게 하시고, 교회갱신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소서.
- ⑦ • 수능 보는 자녀[김정빈(김태용, 김신애) 김용훈(김영인, 이옥환), 신지수(신석호, 서경란) 노현희(노영선, 모화순) 김혜빈(김광수, 황민옥) 강신(강성삼, 윤희숙) 장윤하(김경재)]
• 군인[송병수(송영근, 하애용) 이보람(이경수, 박순란) 채민철(황영숙) 정승주(정성은, 고명순)]
• 환우[이현철, 윤용운, 고명순, 이남숙, 임정선, 김혜빈, 황영수모친]를 위해서.

• 기도방법 •

- 자기가 맡은 시간(정시)에 기도제목을 가지고 2분 이상 기도 합니다.

• 문자서비스 •

- 기도 시작 10분전에 문자로 기도시간을 알려드립니다.

■ 이 ■ 려 ■ 교 ■ 회 ■ 다 ■ 니 ■ 고 ■ 싶 ■ 다 ■

릴레이 기도 시간표

시간	월(13)	화(14)	수(15)	목(16)	금(17)	토(18)
09	홍순호-주순영 황영숙	정성규-김주희 임정선	김태용-김신애 김정연	김보현-윤용운 김수민	김용현-신지원 이종만-백춘옥	조병학-김순자 김태용-김신애
10	강성삼-윤희숙 홍지희	이하용-김경부 이은미	김호곤-윤희섭 모화순	안귀현-김은수 정세진	최인범-임혜진 하상교-김희숙	김호곤-윤희섭 김용현-신지원
11	김광수-황민옥 홍임표	안태훈-최경원 박혜리	이영만-이경아 이영모	박제창-오호순 홍영철	고길곤-정명희 추배식-김은하	이영만-이경아 황영재-서동예
12	정선수-정혜경 조미현	고명순 김경애 정승현	이병우-김은경 팽재욱	김경남-고선영 정철민-김현민	박승남-한경순 박제창-오호순	이병우-김은경 정세진
13	안홍휘-강명옥 박지인	서경란, 박순란 신진원	남기영-이남숙 이순자	한봉현-이명희 정선수-정혜경	이재훈-강경애 김경남-고선영	한봉현-이명희 홍영철
14	김용주-하경찬 김정민	박승남-한경순 박지우	이종만-백춘옥 김용수	황영재-서동예 홍순호-주순영	황영수-이선아 김용주-이영모	안귀현-김은수 팽재욱
15	고길곤-정명희 신철승	배경호-이정신 하경석	조병학-김순자 김정수	하상교-김희숙 김광수-황민옥	배경호-이정신 이현철-강정심	이하용-김경부 임정선
16	이재훈-강경애 이창근	김현민-정철민 정해선	윤철구-최경희 김경재	추배식-김은하 강성삼-윤희숙	조규익-안소임 송영근-하애용	안태훈-최경원 이순남
17	유기영-임순희 유승희	조규익-안소임 이순남	송영근-하애용 황현택	권용철-이현희 안홍휘-강명옥	김영인-이옥환 윤철구-최경희	김보현-윤용운 박순란
18	황영수-이선아 유익석	김영인-이옥환 이은선	이현철-강정심 이선정	기은희-정광식 모화순-서경란	유기영-임순희 남기영-이남숙	정성규-김주희 김용수

• 기도제목 •

- ①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를 통해 “익명의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돕는 교회 되게 하소서.
- ② 나의 주변에 있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확인하고 그들을 초대하게 하소서.
- ③ 이번 세미나를 통해 주변 목회자와 성도를 섬기고, 주변 교회들에게는 제도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교회갱신(개혁)을 일궈가게 하소서.
- ④ 준비팀[김태용(팀장), 하애용, 추배식(총무), 김용주, 조병학, 김정애, 윤희숙, 조미현, 황영수, 박영춘, 배경호, 한경순(팀원)]에게 함께 하시고, 캠페인 기간 동안 그들의 가정, 직장, 하는 일 위에 함께 하셔서 선한 열매 맺게 하소서.
- ⑤ 강사(김 종희 기자, 홍 순호 권사)에게 함께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하 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소서.
- ⑥ 후속모임을 통해 교회갱신의 방향을 소개하게 하시고, 교회갱신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소서.
- ⑦ • 수능 보는 자녀[김정빈(김태용, 김신애) 김용훈(김영인, 이옥환), 신지수(신석호, 서경란) 노현희(노영선, 모화순) 김혜빈(김광수, 황민옥) 강신(강성삼, 윤희숙) 장윤하(김정재)]
• 군인[송병수(송영근, 하애용) 이보람(이경수, 곽순란) 채민철(황영숙) 정승주(정성은, 고명순)]
• 환우[이현철, 윤용운, 고명순, 이남숙, 임정선, 김혜빈, 황영수모친]를 위해서.

• 기도방법 •

- 자기가 맡은 시간(정시)에 기도제목을 가지고 2분 이상 기도 합니다.

• 문자서비스 •

- 기도 시작 10분전에 문자로 기도시간을 알려드립니다.

■ 이 ■ 려 ■ 교 ■ 회 ■ 다 ■ 니 ■ 고 ■ 싶 ■ 다 ■

릴레이 기도 시간표

시간	월(20)	화(21)	수(22)	목(23)	금(24)	토(25)
09	홍순호-주순영 황영숙	정성규-김주희 임정선	김태용-김신애 김정연	김보현-윤용운 김수민	김용현-신지원 이종만-백춘옥	조병학-김순자 김태용-김신애
10	강성삼-윤희숙 홍지희	이하용-김경부 이은미	김호곤-윤희섭 모화순	안귀현-김은수 정세진	최인범-임혜진 하상교-김희숙	김호곤-윤희섭 김용현-신지원
11	김광수-황민옥 홍임표	안태훈-최경원 박혜리	이영만-이경아 이영모	박제창-오효순 홍영철	고길곤-정명희 추배식-김은하	이영만-이경아 황영재-서동예
12	정선수-정혜경 조미현	고명순 김정애 정승현	이병우-김은경 팽재옥	김경남-고선영 정철민-김현민	박승남-한경순 박제창-오효순	이병우-김은경 정세진
13	안홍휘-강명옥 박지인	서경란, 곽순란 신진원	남기영-이남숙 이순자	한봉현-이명희 정선수-정혜경	이재훈-강경애 김경남-고선영	한봉현-이명희 홍영철
14	김용주-하경찬 김정민	박승남-한경순 박지우	이종만-백춘옥 김용수	황영재-서동예 홍순호-주순영	황영수-이선아 김용주-이영모	안귀현-김은수 팽재옥
15	고길곤-정명희 신철승	배경호-이정신 하경석	조병학-김순자 김정수	하상교-김희숙 김광수-황민옥	배경호-이정신 이현철-강정심	이하용-김경부 임정선
16	이재훈-강경애 이창근	김현민-정철민 정해선	윤철구-최경희 김경재	추배식-김은하 강성삼-윤희숙	조규억-안소임 송영근-하애용	안태훈-최경원 이순남
17	유기영-임순희 유승희	조규억-안소임 이순남	송영근-하애용 황헌택	권용철-이현희 안홍휘-강명옥	김영인-이옥환 윤철구-최경희	김보현-윤용운 곽순란
18	황영수-이선아 유익석	김영인-이옥환 이은선	이현철-강정심 이선정	기은희-정광식 모화순-서경란	유기영-임순희 남기영-이남숙	정성규-김주희 김용수

■이■런■교■회■다■니■고■싶■다■

릴레이 기도 시간표

• 기도제목 •

- ①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를 통해 “익명의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돕는 교회 되게 하소서.
- ② 나의 주변에 있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확인하고 그들을 초대하게 하소서.
- ③ 이번 세미나를 통해 주변 목회자와 성도를 섬기고, 주변 교회들에게는 제도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교회갱신(개혁)을 일궈가게 하소서.
- ④ 준비팀[김태용(담양), 하애용, 주배식(충무), 김용주, 조병학, 김정애, 윤희숙, 조미현, 황영수, 박영춘, 배경호, 한경순(팀원)]에게 함께 하시고, 캠페인 기간 동안 그들의 가정, 직장, 하는 일 위에 함께 하셔서 선한 열매 맺게 하소서.
- ⑤ 강사(김 종희 기자, 홍 순호 권사)에게 함께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하 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소서.
- ⑥ 후속모임을 통해 교회갱신의 방향을 소개하게 하시고, 교회갱신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소서.
- ⑦ • 수능 본 자녀[김정빈(김태용, 김신애) 김용훈(김영인, 이옥환), 신지수(신석호, 서경란) 노현희(노영선, 모화순) 김혜빈(김광수, 황민욱) 강신(강성삼, 윤희숙) 장윤하(김경재)]들의 진로를 인도하소서.
• 군인[송병수(송영근, 하애용) 이보람(이경수, 곽순란) 채민철(황영숙) 정승주(정성은, 고명순)]
• 환우[이현철, 윤용은, 고명순, 이남숙, 임정선, 김혜빈, 황영수모친, 고명순시부친]를 위해서.

• 기도방법 •

- 자기가 맡은 시간(정시)에 기도제목을 가지고 2분 이상 기도 합니다.

• 문자서비스 •

- 기도 시작 10분전에 문자로 기도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시간	월(27)	화(28)	수(29)	목(30)	금(12/1)	토(12/2)
09	홍순호-주순영 황영숙	정성규-김주희 임정선	김태용-김신애 김정연	김보현-윤용은 김수민	김용현-신지원 이종만-백춘옥	조병학-김순자 김태용-김신애
10	강성삼-윤희숙 홍지희	이하용-김경부 이은미	김호곤-윤희섭 모화순	안귀현-김은수 정세진	최인범-임혜진 하상교-김희숙	김호곤-윤희섭 김용현-신지원
11	김광수-황민욱 홍임표	안태훈-최경원 박혜리	이영만-이경아 이영모	박제창-오호순 홍영철	고길곤-정명희 추배식-김은하	이영만-이경아 황영재-서동예
12	정선수-정혜경 조미현	고명순 김정애 정승현	이병우-김은경 팽재욱, 이순자	김경남-고선영 정철민-김현민	박승남-한경순 박제창-오호순	이병우-김은경 정세진
13	안홍희-강명옥 박지인	서경란, 곽순란 신진원	남기영-이남숙 박영춘-이영희	한봉현-이명희 정선수-정혜경	이재훈-강경애 김경남-고선영	한봉현-이명희 홍영철
14	김용주-하경찬 김정민	박승남-한경순 박지우	이종만-백춘옥 김용수	황영재-서동예 홍순호-주순영	황영수-이선아 김용주-이영모	안귀현-김은수 팽재욱
15	고길곤-정명희 신철송	배경호-이정신 하경석	조병학-김순자 김정수	하상교-김희숙 김광수-황민욱	배경호-이정신 이현철-강정심	이하용-김경부 임정선
16	이재훈-강경애 이창근	김현민-정철민 정해선	윤철구-최경희 김경재	추배식-김은하 강성삼-윤희숙	조규억-안소임 송영근-하애용	안태훈-최경원 이순남
17	유기영-임순희 유승희	조규억-안소임 이순남	송영근-하애용 황현택	권용철-이현희 안홍희-강명옥	김영안-이옥환 윤철구-최경희	김보현-윤용은 곽순란, 김용수
18	황영수-이선아 유익석	김영안-이옥환 이은선	이현철-강정심 이선정	기은희-정광식 모화순-서경란	유기영-임순희 남기영-이남숙	정성규-김주희 박영춘-이영희

“이런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 준비팀 - 카페이름 및 협력자공모

1. 카페이름 공모 : 다음카페를 개설하려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읽어 보신 후 이름을 이쁘게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공모안 예시 : 1) 카페 영문이름 예 : <http://cafe.daum.net/yeinorg>

2) 카페 한글이름 예 : 예인가족

- 위 예시안은 실제 예인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참고하세요.

2. 운영자 및 협력자 모집

응모방법 : [이런교회] 준비위원에게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 김용주집사

-카페 소개-

. 카페를 만들려는 배경

1. 익명의 그리스도인중에는 교회의 운영 및 제도적인 면이 성경적이지 않음을 보고 실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점에 있어서 예인교회는 성경적인 비전을 따라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도 부족함이 많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실망한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겐 희망과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믿기에 [이런교회]행사는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2. 이번 행사를 준비하며 준비팀의 의견이 이번 행사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행사가 연례행사로 자리매김이 될지 독립사역으로까지 발전시켜야 하는지 등의 여부는 준비팀이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에도 이런 행사를 한다면 좀더 충분한 홍보시간을 확보하고 불특정 다수에게도 효과적으로 예인이 걸은 길을 알릴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카페는 불특정다수에게 홍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사연을 나누고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어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카페는 이번 행사나 예인교회를 알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교회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로 키워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인교회 카페가 있지만 새롭게 만들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 카페가 하는 역할

1. 교회개혁을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인교회가 노력해온 내용을 보여 준다.
2. 예인교회에 대해 궁금한점을 질문할 수 있고 대답해 줄수 있다.
3. 교회개혁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나눌수 있다.
4. 예인교회처럼 개혁을 이루어 가는 교회들이 있다면 소개될 수 있다.

. 카페의 성격

예인교회이름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인교회가 보여준 개혁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며 시작하지만 교회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과 교회들을 위한 카페가 되길 바랍니다.

. 카페의 운영

1. 회원관리를 통해 카페의 성격에 부합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으며 무분별하고 소모적인 신학논쟁이나 헐뜯기 또는 근거 없는 비방등을 방지한다.

2. 여러 명의 협력자를 두어 함께 의논하고 관리 한다.(당번제로 글쓰기, 답글달기 등)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화일보 11월 30일자

‘목사’ 권한 너무 크다

- 사건으로 짚어보는 ‘한국교회의 문제점’

김종락기자 jrkim@munhwa.com

목사의 인사권 전횡 및 불투명한 재정 운용, 목사의 성 문제, 강 단의 사유화, 원로목사와 담임목사의 갈등이나 목사와 장로의 갈 등, 교인들의 직분 매매, 교회의 배타성과 정치세력화...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정리한 한국 교회의 문제점들이다. 경 기 부천시 예인교회가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는 주제로 다음 달 3일 부천시 복사골 문화센터에서 개최하는 세미나는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거나 목사나 교인의 전횡으로 상처 받은 사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가 교회를 옮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등 을 위한 자리.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 교회가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는 기독교 인터넷 신문 ‘뉴스앤 조이’ 김종희 전 대표의 발제에 따르면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대부분 성직자와 관련된 것들이다.

김 전 대표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목사의 과도한 권 한을 꼽았다. 거액의 교회 재정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로 법원 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서울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를 비롯, 아들 교회에 100억원이 넘는 돈을 변칙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재정 장부를 소각해버린 서울 S교회 K목사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 또 미국의 한 대형 한인교회 목사는 주차장 용지 매입과 관련해 비용을 과다 하게 지출하고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 자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를 해산하고, 운영위원회 체제로 전환하 기도 했다고 김 전 대표는 말했다.

목사의 불륜도 교회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로 서울 동대문교회 서기종 목사는 여전도사와의 간통으로 대법 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전 중앙성결교회 담임 이복렬 목사 는 불륜이 드러나 교단에서 파직·출교당하기도 했다. 대형 교회 의 담임목사로, 한국 개신교계의 거물로 꼽히는 서울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와 인천 평화교회 장효희 목사도 여자관계로 물의를 빚은 성직자들이 다.

변질된 신학, 강단의 사유화, 원로목사와 담임목사의 갈등이나 목사와 장로의 싸움도 한국 교회를 해치는 행위로 꼽혔다. 김 전 대표는 그 사례로 자신의 재정 집행에 의혹을 제기하는 장로와 갈등을 벌 이다 강단에서 “나(목사)를 따르는 것은 비전을 좇는 것이고 미래가 있는 것이며, 그들(장로)을 따르는 것은 기득권을 좇는 것이고, 과거에 매이는 것”이라고 설교한 미국 동양선교 교회의 강준민 목사를 꼽았다. 또 원로목사 지지파와 담임목사 지지파가 서로 갈려 싸움을 벌인 서울 송파구 풍납동 광성교회(예장 통합)는 한때 수만명의 교인이 등록된 손꼽히는 대형 교회 였으나 2년 이상 분규가 계속되면서 교인수가 수천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인들이 교회의 직분을 둘러싸고 다투며 헛된 명예를 추구하거나, 이웃 종교에 배타적인 일부 성직자의 경직성, 불관용, 광신 주의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이 밖에 김 전 대표는 대 학 진학을 위한 특별기도회 등에서 드러나는 물질주의나 성공주의, 기복주의, 구국 기도회를 빙자한 정치적 압력과 힘의 남용 등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제반 문제를 개선할 대안으로, 신학적으로는 잘못된 신학이 나 변질된 설교에 휩쓸리지 않는 깊이 있는 성서 연구를, 제도적 으로는 특정인의 전횡을 차단할 민주적인 내용을 담은 교회의 정 관 제정이 제시됐다. 김 전 대표는 무엇보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잘먹고 잘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 땅에서 실천하며 사는 것,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은 이들을 섬기며 함께하는 것,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며 사는 것이 아 니라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라며 신앙과 삶의 의미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을 촉구했다.

김종락기자 jrkim@munhwa.com

연합뉴스 11월 30일자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연합뉴스 2006-11-30 17:05]

목회사회학연구소·예인교회 등 세미나 잇따라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 "개신교가 침체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종교로서 성스러움을 잃어버리고 물질주의와 경제지상주의와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사회학자 박영신 연세대 명예교수는 30일 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목회사회학연구소(소장 조성돈·실천신학대학원 교수)와 연구모임 "일상과 초월"이 주최한 "현대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가톨릭 성장"이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한국 개신교가 당면한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했다.

통계청이 5월 발표한 인구통계에 따르면, 천주교 신자는 1995년 295만 명에서 2005년 516만6천 명으로 크게 증가한 데 반해 같은 기간 개신교 신자는 876만 명에서 861만 명으로 감소했다.

박 교수는 지난 10년간 개신교 신도가 교회를 떠난 가장 큰 이유로 "종교로서 성스러움"을 잃은 것을 꼽았다. 교세확장 등 지나치게 세속적인 외형을 추구해온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누적돼 신도수 감소로 이어졌다고 본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기독교 인터넷신문 "뉴스앤조이" 김종희 전 대표는 12월3일 오후 3시 부천 복사골문화센터에서 예인교회 주최로 열리는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주제의 세미나에서 세속화한 일부 성직자들의 부패와 독선 등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김 전 대표는 "한국교회가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라는 발제문에서 일부 교회에서 ▲목사의 인사권 전횡과 불투명한 재정운용 ▲목사의 성 문제 ▲강단의 사유화 ▲원로목사와 담임목사, 목사장과 장로 등 지배구조를 둘러싼 갈등 등의 문제점을 각종 사례를 통해 지시했다.

예컨대 거액의 교회재정을 횡령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G교회 K목사, 여신도나 여전도사와 불륜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D교회 S목사나 J교회 L목사 등 일부 성직자들의 일탈적 행위, 구국 기도회 등을 방자한 정치적 압력, 불상이나 단군상을 훼손하는 등 불관용, 대학진학을 위한 특별기도회 등에서 드러나는 기복주의 등이 개신교의 부정적 이미지를 키운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김 전 대표는 발제문에서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목사나 장로 등 모든 직분자의 임기제 도입 등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민주적 정관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세속적 욕망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착각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깊이 있는 성서 연구와 더불어 삶의 의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kchung@yna.co.kr

※ 원문출처: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482645§ion_id=103&menu_id=103

국민일보 2006년 12월 5일자 25면 기사 발췌

[세상 성기는 건강한 교회가 되라... '다니고 싶은 교회' 포럼]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제 당신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일인 3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상1동 복사골문화센터 5층에서는 한 지역교회 주최로 교회의 자성을 촉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려 이목을 끌었다.

부천 예인교회(정성규 목사)가 마련한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주제의 세미나가 그것. 세미나에서는 부천 예인교회와 서울 영동교회 등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교회를 위해 해온 노력들을 소개했다.

예인교회는 교회당이 따로 없고 주일마다 부천지역의 문화센터를 빌려 예배드린다. 목회와 행정이 분리돼 있어 목사는 목회에 전념하고 행정은 평신도들 가운데 선출된 7인의 운영위원회가 맡고 있다. 재정은 매달 공개하고 교회 예산의 절반 정도를 소외된 이웃과 선교에 쓴다.

1976년 지어진 옛 예배당을 그대로 쓰는 서울 논현동 영동교회(정현구 목사)도 모범적 교회로 소개됐다. 서울 강남의 대형 교회인데도 건물이 이처럼 낡은 것은 헌금이 적어서라기보다는 1년 예산 20억 여원의 절반 가량을 자신들보다는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쓰기 때문이다.

이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평신도들의 역할이 크다. 외부지원 심사위원회도 집사들의 모임인 제직회 중심으로 꾸려지고, 위원장도 담임목사가 아닌 한 장로가 맡는다. ‘사랑의 관계학교’ ‘중년 여성학교’ 등 평신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줄을 이어 신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다.

세미나에 참석한 100여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재정의 불투명성, 물량주의, 기복주의, 이웃외면 등 교회의 잘못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도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들을 냈다. 또 이들은 소그룹 모임 등을 통해 교회가 좀더 새로워지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고민만 하기보다 더 노력해보자는 의지로 가득했다.

세미나에는 잘못된 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참석했다.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했거나, 목회자 또는 교우들에게서 상처받은 사람, 교회 일을 하다 교회를 옮길 생각을 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자리가 됐다.

발표자인 예인교회 운영위원장 홍순호 권사는 건강한 교회의 5가지 조건으로 △정체성과 순수성 △재정 관리의 투명성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 △평신도 세우기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의 균형 등을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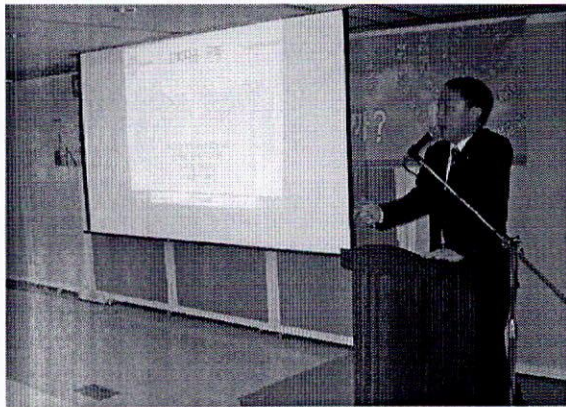
특히 재정 투명화 방안으로 회식비 등을 자기 부담으로 처리하고 증빙서류를 반드시 챙기며 철저한 감사 제도를 시행할 것을 권장했다. 강사들은 깊이있는 성서 및 신학 연구, 민주적인 교회 정관 제정, 진지한 내적 성찰과 반성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행사를 주최한 예인교회 정성규 목사는 “한국 교회가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운영은 민주적으로, 소유는 최소한, 나눔은 최대한’의 정신으로 무장해 이제 사회의 본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예인교회, 한국교회 문제 진단하고 대안적 실험 소개



◀ 예인교회가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는 주제의 세미나를 12월 3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중희 기자는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다른 발제를 맡은 예인교회의 홍순호 권사(사진)는 예인교회의 사례를 소개하며 '그래도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유현

교회가 이웃을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교회는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가가고. 물론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초청 대상이다. 부천 예인교회(목사 정성규)도 여느 교회들처럼 이웃을 초청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그러나 예인교회는 이웃을 위해 다른 교회와는 다른 걸 준비했다. 예인교회는 '한국교회 이것이 문제다', '교회다운 교회를 위한 노력'이라는 심각한 주제의 세미나를 계획했다. 그 이유는 이날 행사에 초대되는 사람들이 주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미나의 주제가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다.

첫 번째 세미나의 발제는 김중희 기자(미주뉴스앤조이 편집인)가 맡았다. 그는 먼저 '목사의 과도한 권한'을 한국교회의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그는 "김홍도 목사(금란교회)가 재정 31억 원을 횡령하고 배임했다. 또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 원 판결을 받았다"며 "법원에서 교회의 잘못을 고집어준 예"라고 밝혔다. 또 동양선교교회의 예를 들었다. 김 기자는 "강준민 목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자 교인 총회를 통해 장로들의 체제를 운영위원회 체제로 바꿔 교회를 자신의 분위기로 만들었다. 일반 교인도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제도는 좋지만 불순한 의도로 그렇게 만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목사의 성 문제', '강단의 사유화' '왜곡된 지배 구조'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 김 기자는 그동안 <뉴스앤조이>에서 다룬 서기종 목사(동대문교회)와 장효희 목사(평화교회) 등의 사례를 들면서, 목사들의 불륜 문제는 드러나지 않은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가 교회의 직분 매매를 문제로 지적했을 때는 무릎을 치며 탄성을 지르는 참석자들도 보였다. 참석자들이 교회에서 경험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김 기자는 "장로나 권사가 되기 위해서 일정액의 현금을 해야 하는 교회가 있다. 심지어 액수를 명시한 편지를 보내고 거기 동의를 하면 직분을 주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개혁하려면 교인도 신학 공부해야

그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교회가 세상 가치관에 편승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는 "요즘은 ARS를 통해 녹음된 축복 기도를 받는 시대다. 인격적인 소통이 없는 기도에 교인들이 돈을 지불한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인들의 깊이 있는 신학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정한 성경 속의 복을 발견하고, 기독교세계관을 익혀야 한다는 말이다. 또 민주적인 교회 정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목사를 비롯한 한 사람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직분 임기제, 재산 관리 절차, 징계 절차 등을 제대로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세미나에는 홍순호 권사(예인교회 운영위원장)가 나섰다. 그는 예인교회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일을 소개하며, '교회다운 교회를 위한 노력'이 무엇인지 알렸다. 그에 설명에 따르면 예인교회는 성가대의 식사와 주일학교 교사들의 회식에도 자비 부담 원칙을 사용할 정도로 재정 운영 기준이 엄격하다. 그렇게 낭비하지 않은 돈(재정의 22%)을 소외된 이웃에게 나누는 일에 쓴다. 주일 점심도 문화센터에 위치한 교회의 특성상 문화센터의 식당에서 먹는다. 일이 없어진 식사 봉사자들이 장애인 단체를 찾아가 식사 봉사를 하는 여유가 생겼다.

홍 권사는 "우리 교회도 잘못하는 일이 있다. 새신자들이 교회 적응을 어려워하며, 외부와 교류가 잘

안 되는 단정도 있다. 우리는 그저 상처를 치유하고 개선하는데 작은 대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뿐이다"며 이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세미나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서울·인천·부천 등 지역별로 모였다. 이들은 이 시간에 자신이 경험한 교회 이야기를 나눴다. 이경애 씨는 "우리 교회는 목사 중심으로 운영된다. 재정 운영도 투명하지 않은 것 같다"며 자신의 교회 현실을 털어놓았다. 박재구 씨는 "우리 교회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다. 1000명이 넘으면 개척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의 약속과 달리 교회를 개척하지 않더라. 최근에는 3000명이 되면 개척하겠다고 한다. 그런 대형 교회를 지어서 무슨 일을 하려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엄석주 씨는 "한국교회의 문제를 듣고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예인교회의 남기영 집사는 "나는 분규가 있는 교회를 떠나 예인교회로 왔다. 오늘 행사에 그 전 교회의 교우들을 초청했다. 그 분들이라면 충분히 오늘 세미나에 공감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50여 명 정도의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참가했다. 이들의 상당수는 교회에서 분규를 겪었거나 교회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이 교회에 등록하고 교인이 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은 같은 아픔을 겪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동지를 발견했다. 자기 교회의 문제점도 파악했을 것이다. 한 참가자의 말이 여운을 남긴다. "적어도 저 부분은 우리 교회 가서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직분자의 기득권을 포기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예인교회의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

그래도 교회에 희망 있다'는 것 깨닫는 교육과정

예인교회의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는 세미나는 후속 프로그램으로 이어진다. 세미나를 통해 대안적인 교회 공동체를 접한 사람들은 13주 동안의 후속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후속 프로그램은 오는 12월 10일부터 2007년 3월 18일까지 진행되며, 매 주일 오후 3시 부천시 상1동 복사골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일반적인 교회들도 교회의 적응을 위한 일종의 '새가족반'을 운영한다. 그러나 예인교회의 후속 프로그램은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인다. 정성규 목사는 "후속 프로그램은 교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는 축복·믿음·교회 등에 대한 강의와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교인들이 명확하게 알지 못한 부분과 교회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오해한 생각을 되새겨주는 게 강의의 목적이다"고 말했다.

강의는 왜곡된 신앙과 신학을 점검하고, 교회개혁의 비전을 함께 나눈다. 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배운다. 또 '권리 포기'라는 과정을 통해 진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훈련한다. 정 목사는 "교회를 떠났거나,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교회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인들의 공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